

# 尹, 이번주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김건희 여사 동행

### 정상회의 창설·'K-실�크로드' 구상 추진...15일 귀국 천연가스·우라늄·크롬 등 공급망 협력 핵심 의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 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4개국뿐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전대를, 민심 반영 20% vs 30% '팽팽'

### 2인 체제 결론 못내...이번주 가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표 선출 방식과 지도부 교체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에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특위는 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선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심' (일반국민 여론조사)을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 특위 위원은 9일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30% 반영은 '권리당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20%는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현역의원 108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20%와 30%의 선호도 차이가 한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교체 논의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부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핵심이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현재 단일체제와 집단체제 장단점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체제를 거론하면서 논의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현행 체제를 선불리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만큼 단일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당내 중론이 형성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1호 법안 발의

####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현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



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만6000원, 초등학교생 78만5000원, 중고등학생 91만9000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 강진 현장 방문

####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완도~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과 2단계 사업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처장, 도로계획부장, 건설계획팀장, 건설지원팀장 및 사업단장이 참석해 강진-광주 건설공사 현황과 강진-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남북축 및 동서축 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높여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인 강진-광주 구간 건설은 총연장 51.1km, 총 사업비 1조7964억원을 투자해 2017년 8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선정에서 해남 남창까지 총 연장 38.9km, 총 사업비는 1조5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 2023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예타가 통과되면 광주-나주-영암-강진-해남-완도까지 2시간 정도 걸렸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경제·의료·문화·교육·관광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전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